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Total emerges in market for half-dozen LNG carriers as gas portfolio grows

프랑스의 슈퍼 메이저 Total사는 가스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한 LNG 화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대 6척의 LNG선을 발주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Total사는 현재 신조선 건조 또는 선령 10년 미만의 LNG선을 찾고 있다고 보도됨. 선박 건조 시 요구하는 인도 일정은 2022년 3분기라고 보도됨. (TradeWinds)

## Galp closes in on preferred shipowner for LNG carrier charter

포르투갈의 Galp Energia가 LNG선 용선을 위해 3개의 선주들과 협상중이라고 보도됨. 한국의 팬오션, 덴마크의 Celsius Shipping, 그리고 Evangelos Marinakis의 Capital Gas가 최종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Celsius와 Capital Gas는 LNG선 건조를 위해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에 총 11척을 발주한 바 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

## Brazil's iron-ore exports reach 2020 high last week

브라질 철광석 주간 수출량이 2020년들어 최고 수준인 770만톤을 기록했다고 보도됨. 중국의 철광석 수요 급증에 따른 결과이며, Capesize 벌크선 스팟(spot) 운임 급등으로 이어졌다고 보도됨. 현재 Capesize 벌크선 평균 스팟 운임이 일일 19,912달러 수준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 Tanker congestion remains severe in China with over 80 ships waiting

이번 달 물려든 탱커로 인해 중국 항구 내 혼잡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도됨. Kpler에 따르면, 총 83척의 탱커가 중국 항구에 정박 대기 중으로 집계됐으며, VLCC는 43척, Suezmax는 17척, Aframax는 13척이라고 보도됨. 일반적으로 정박 대기 시간이 5~6일인데 반해 60일 가량 대기 중인 VLCC도 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

## 탄소배출량은 늘어만 가고

선박 엔진과 선체 효율성이 향상되고 선박의 항속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탄소 배출량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됨. 전 세계 탄소배출량에서 선박이 차지하는 비율도 2.76%에서 2.89%로 증가했다고 보도됨. 2020년 가을에 열릴 예정인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서 IMO가 설정해 놓은 감축 목표 40%의 수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 일본 쿠미아이, 중국에 첨단 MGC 발주

일본 선주 쿠미아이 선파쿠가 중국 CSSC 산하 Jiangnan Shipyard에 LPG추진 MGC 1척을 발주했다고 보도됨. 해당 선박은 4만CBM급 가스운반선으로 2023년 1분기 인도 예정으로 알려짐.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선박의 가격은 5천만달러 미만으로 추정된다고 보도됨. (선박뉴스)